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63호

I 우리 딸기, 더 맛있게 수출

II 멜론 수경 재배 기술 개발

III 중동·아프리카 식량원조 쌀 수출검역지원







IV 『전자검역증』 상용화 검역본부 주도적 역할 기대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 63호 2019. 6. 21(금)






‘19.5.31까지 농수산물식품 수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한 39.5억\$



부류별

| 신선 | 가공 | 수산 |
|---|---|---|
|   4.2% 541백만불 |   0.9% 2,354백만불 |   7.6% 1,054백만불 |
| + 인삼류, 김치, 딸기 - 파프리카, 배, 유자차 | + 맥주, 쌀가공식품, 조제분유 - 비스킷, 설탕, 소주 | + 김, 고등어, 삼치 - 참치, 넙치, 오징어 |

국가별

*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반영

| | |
|---|---|
|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중국 661백만불(23.6%)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샤오미유핀 연계 한국종합식품 온라인 판촉(~8.3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92%), 라면(26%) ▼ 설탕(△37%), 유자차(△24%) |
|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미국 469백만불(6.7%)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9 Ranch 마켓 연계 삼계탕 판촉(계속) ▶ COSTCO 연계 김치 판촉(계속)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련(52%), 김(2%) ▼ 인삼류(△39%), 라면(△10%) |
|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일본 866백만불(0.9%)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aokko 마켓 등 연계 신선식품(파프리카) 판촉(~6.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굴(21%), 굴련(15%) ▼ 참치(△22%), 파프리카(△6%)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피조제품(7%), 참치(5%) ▼ 김(△30%), 음료(△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싱가포르 NTUC 연계 음료류 판촉(~6.30) ▶ 베트남 박항서 감독 활용 한국종합식품 판촉(~7.31)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삼류(9%), 굴(9%) ▼ 설탕(△16%), 딸기(△3%) | <div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ASEAN 761백만불(△0.2%) </div>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파스타(22%), 음료(4%) ▼ 참치(△17%), 커피조제품(△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Morrisons, Waitrose 연계 가공식품 판촉(계속) ▶ 독일 METRO 네덜란드 에스니마켓 연계 한국종합식품 판촉(계속) |
| | <div style="background-color: #f96;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홍콩 172백만불(△1.9%) </div> |
| | <div style="background-color: #d9ead3; padding: 5px; text-align: center;"> EU 241백만불(△9.0%) </div> |

☆  : 15%이상 /  : 5~15% /  : 0~5% /  : 0~△5% /  : △5~△15% /  : △15%이하

품목별 이슈

* 실적 : '19. 1. 1 ~ 5. 31



“ 김치 ”

◇ 가격 안정화와 함께 주요 유통망 중심 입점 확대로 현지 수요 증가

43,431천불(9.0%)

▶ 주요 수출국 : 일본(23,958천불, △1.1%), 미국(5,808, 71.0),
홍콩(2,093, 12.4), 대만(1,554, △5.3), 영국(1,461, 36.7)

“ 토마토 ”

◇ 1위 수출국인 일본의 수요 확대 및 현지 신규 바이어 발주 증가



▶ 주요 수출국 : 일본(5,528천불, 18.1% ↑), 러시아(464, △5.3),
중국(294, △43.1), 베트남(116, 83.7), 홍콩(54, 12.9)

6,645천불(9.7%)



“ 음료 ”

◇ 여름철 대비 및 현지 유통 매장 입점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

179,656천불(0.6%)

▶ 주요 수출국 : 캄보디아(35,709천불, 16.2% ↑), 미국(32,240, 8.9)
중국(25,069, 24.8), 베트남(11,407, 2.6), 러시아(7,599, 16.1)

☆ 자세한 동향관련 내용은 aT kati(www.kati.net) > 수출동향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식품 수출 Zoom In>은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aT 수출기획부 061-931-0816,7)

농진청 이슈



우리 딸기, 더 맛있게 수출

우리나라 딸기 수출의 90% 가량을 차지하는 “매향” 품종을 대체할 새로운 품종을 홍콩에 수출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매향 품종은 익는 속도가 느리고 물러짐이 적어 수출에 적합하나, 제대로 익지 않고 착색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홍콩 현지 업체는 매향을 대체할 품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다. 이번에 수출한 딸기는 조직이 단단하고 크기가 큰 ‘아리향(농진청 개발)’과 당도와 향이 우수한 ‘금실(경상남도농업기술원 개발)’ 품종이다. 충분히 익은 상태에서도 물러짐 없이 수출하기 위해 ‘수확 후 관리 일관 시스템 기술*’을 적용했다.



<홍콩현지 진열모습>



<아리향 딸기>

- * ① 수확 후 예비 냉장 ② 이산화탄소+이산화염소 동시 처리
 ③ 기능성 MA 포장재 적용 ④ 수출 컨테이너 온도 2°C, 환기구 개폐 1/3로 조절
 - 이산화탄소와 이산화염소를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은 딸기가 물러지는 현상을 방지하고 부패율을 20% 정도 줄였고 기능성 물질을 함유한 포장용기는 딸기의 증산작용과 호흡을 억제하여 신선도를 3일~4일 연장하는 효과를 얻었다.

이번 수출로 우리 딸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시범 사업 추진 협의회 개최

5월 24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에서는 신선 원예 농산물 수출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분야 신기술 보급 시범 사업 추진 협의회’를 열었다.

올해엔 양구 아스파라거스를 비롯해 6개 시군에 맞춤형 상담과 판매 소재 개발, 수출 안전성 관리, 상표 개발, 포장·선별 기계 장치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수출 유망 신규 품목 발굴, 수출 농산물 안전성 교육, 분야별 전문가 합동 종합 상담으로 수출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고 있다.

멜론 수경 재배 기술 개발



멜론은 맛과 향이 좋고 과육이 부드러워 소비층이 다양하다. 최근엔 토양전염성 병해충을 일으키는 땅 재배 대신 정밀한 물·양분 관리가 가능한 수경 재배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코코넛 열매의 껍질을 가공해 만든 배지를 활용해 국내에서 육성한 13품종을 대상으로 수경 재배 실험을 한 결과 모두 잎이나 과실에 장애가 없었다. 특히 6품종은 단맛, 육질, 외관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수출 규격(1.5~2.0kg 기준)에 알맞고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진청 이슈 문의 ☆ 농촌진흥청 수출농업지원과 063-238-0674

식물검역 이슈



중동·아프리카 식량원조 쌀 수출검역지원



우리 정부는 '19.1월 세계식량계획(WFP*)과의 실무 회의와 '19년 식량 원조 협약(FAC**)의 식량 원조 세부 계획에 따라 중동·아프리카 지역 4개국에 식량을 원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국가별 원조 물량은 예멘 19천톤, 에티오피아 16천톤, 케냐 10천톤, 우간다 5천톤으로 총 5만톤이다. 원조를 받는 국가의 하역 여건을 감안한 WFP의 선박 운송 계획과 이에 따른 인접성, 지역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한 목포항, 군산항, 울산항 등 3개 항구에서 선적이 실시됨에 따라 검역본부는 쌀의 병해충 검사와 관련 도정 공장, 운송 차량, 선박 훈증 소독을 필요시 실시한 후 식물위생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우리나라의 식량 원조 사업을 4~5월에 지원한 바 있다.

* WFP : UN 산하 식량원조기구(World Food Programme)
 ** FAC :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전자검역증』 상용화 검역본부 주도적 역할 기대

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19.5.13.~15.(3일간) 개최된 「제3회 지속 가능 농업 개발을 위한 글로벌 ODA 포럼」에서 '전자식물위생증명서(ePhyto)과 국제무역' 이라는 주제의 토론회 토론자로 참석하였고, '19.5.17.에는 인천 공항에서 검역본부 직원들을 대상 동일한 주제로 세미나도 개최하였다. 기존의 「종이 검역증」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술인 전자검역증은 세계식량기구(FAO) 산하 국제식물 보호협약(IPPC)가 선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ePhyto 상용화 지원을 통하여 관련 분야(동물, 식품 분야 등)의 증명서 현대화를 촉진하고 수출입통관 시간 단축을 통해 수출 시장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역본부는 앞으로도 ePhyto 상용화 협상에 적극 참여 함으로써, 우리 농산물 수출 증대 및 시장 개척의 기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의 농산물 수출검역요건은 농림축산검역본부(www.qia.go.kr) > 수출식물검역정보 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식물검역 이슈는 월 1회 발행됩니다. (문의처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지원과 054-912-0623)